

- 주요 뉴스: ECB, 주요 정책금리 동결. 금리인상은 3/4분기 채권매입 종료 이후 시행
 - 미국 뉴욕 연은 총재, 5월 FOMC에서의 0.5%p 금리인상 검토는 합리적 선택
 - 미국 3월 소매매출, 예상치 하회. 휘발유 및 식품 관련 지출은 증가
 - 중국 주식, 봉쇄 조치에 따른 부작용에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견지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연준의 긴축기조 강화 및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1.2%], 달러화 강세[+0.4%], 금리 상승[+13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은행주 실적 부진 전망 등으로 투자심리 약화
 유로 Stoxx600지수는 예상보다 덜 매파적인 ECB 통화정책회의 결과로 0.7%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ECB 통화정책회의 이후 유로화 약세 등이 배경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6%, 0.2%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의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19년 1월 이후 최고치
 독일은 미국 채권시장과 유사한 이유로 8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230.8원, +6.1원) 0.5% 상승, 한국 CDS 상승

		4/14일	4/13일	전일대비			4/14일	4/13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392.6	4,446.6	-1.21%	국채 금리 10y	미국	2.83%	2.70%	13bp
	유럽	459.82	456.78	0.67%		독일	0.84%	0.77%	8bp
	중국	3,225.6	3,186.8	1.22%	CDS 5y	한국	32bp	31bp	1bp
	일본	27,172	26,843	1.22%		중국	67bp	68bp	-1bp
	한국	2,716.7	2,716.5	0.01%	위험 지표	EMBI+	-	384	-
환율	달러지수	100.31	99.88	0.43%		VIX	22.70	21.82	4.03%
	유로화	1.0828	1.0888	-0.55%		WTI유	106.95	104.25	2.59%
	엔화	125.88	125.62	-0.21%	원자재	구리	472.4	471.2	0.24%
	위안화	6.3784	6.3682	-0.16%		금	1,973.7	1,977.8	-0.21%
	원화	1,224.7	1,228.0	0.27%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ECB, 주요 정책금리 동결. 금리인상은 3/4분기 채권매입 종료 이후 시행

- 4월 통화정책회의에서 현행 기준금리(0%), 예금금리(-0.5%), 한계대출금리(0.25%)를 모두 유지하기로 결정. 채권매입 종료 시기도 3/4분기로 앞당긴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기준금리 인상은 채권매입 종료 후에 시행할 방침
- 또한 경제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통화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유연성을 확보하겠다고 발표. 라가르드 총재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단기적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은 심화되고 성장 전망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발언
- 블룸버그에 따르면, 정책위원들이 7~9월 0.25%p 금리인상 가능성을 논의. 라가르드 총재는 채권매입 종료 직후 혹은 수개월 이후 금리인상이 가능하다고 유연한 입장 피력. 선물시장에서는 연말까지 0.62%p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제시
- Bank of America의 Athanasios Vamvakidis는 투자자들은 좀 더 구체적인 채권매입 종료 및 금리인상 시기를 기대했는데, 실제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고 언급. 이에 라가르드 총재가 예상만큼 매파적(hawkish)이지 않았다고 평가
- ING의 Carsten Brzeski는 7월 자산매입 종료 및 9월 첫 금리인상을 예상하지만, 전반적인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는 매우 천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IMF 총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경제에 충격. 143개국 성장을 전망 하향 예상

-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로 이미 취약한 상태인 세계경제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 세계경제의 근본 위험원인은 이번 전쟁이므로 반드시 끝나야한다고 주장

■ 미국 뉴욕 연은 총재, 5월 FOMC에서의 0.5%p 금리인상 검토는 합리적 선택

- 윌리엄스 총재는 지금과 같은 저금리 여건을 고려한다면 빅스텝(0.5%p 인상)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피력. 경제도 이를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고 평가
- 클리블랜드 연은 메스터 총재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하지만 경기확장 및 건전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부연

■ 미국 3월 소매매출, 예상치 하회. 휘발유 및 식품 관련 지출은 증가

- 3월 소매매출은 전월비 0.5% 늘어 전월(0.8%) 및 예상치(0.6%)에 미치지 못했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 가격상승 영향으로 휘발유, 식료품 등의 필수소비재 지출이 큰 폭 증가한 반면, 일부 임의소비재 관련 지출은 상대적으로 부진
- FWDDBONDS의 Christopher Rupkey는 1/4분기 소비활동이 대체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소비자의 고물가에 대한 피로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
- 4월 미시건대 소비자태도지수는 65.7을 기록하여 전월(59.4) 및 예상치(59) 상회. 이번 결과는 긍정적인 고용여건 및 임금상승 기대 등에 기인. 한편 최근 휘발유 가격 하락 등으로 인플레이션 전망은 기존 수준을 유지

■ 중국 주식, 봉쇄 조치에 따른 부작용에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견지

-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예방과 제어 노력이 느슨해질 수 없다고 강조. 최근 강력한 봉쇄 영향으로 시민들의 필수 생활용품 구입이 어려워지고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둔화되면서, 관련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

■ 일본은행 부총재, 일시적 요인 제외 시 인플레이션은 목표치를 하회

- 와카다베 부총재는 일본이 더 이상 저물가에 따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디플레이션을 완전히 탈피한 것도 아니라고 발언. 최근 엔화 약세와 관련하여,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언급

■ 러시아, 점진적인 자본규제 완화를 검토. 루블화 가치 상승 등이 배경

- 당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한 엄격한 자본통제가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었으나 경기둔화를 초래할 위험이 내포된 것으로 평가. 이에 최근에는 수출기업이 수취한 외화에 대한 의무적인 루블화 환전 규정의 지속 여부를 논의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4/14 현지시각 기준)

- 미국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만건): 18.5, 전주(16.7), 예상치(17.1)
- 미국 3월 수입물가(전년동월비): 12.5%, 2월(11.3%), 예상치(10.1%)
- 미국 2월 기업재고(전월비): 1.5%, 1월(1.3%), 예상치(1.3%)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경제, '24년 대선 전 경기후퇴 징후가 가시화 - The New York Times

(We May Be on Track for a Recession Just as the 2024 Campaign Kicks Off)

- 인플레이션 논쟁이 일단락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연준이 경기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지 여부. 강한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보다 더 높은 금리인상이 필요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존재
-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지난 75년 간 물가상승률이 4%를 초과하고, 실업률 5% 미만인 경우 2년 이내에 경기후퇴가 발생했다고 지적. 아울러 과거 10년물 국채금리가 2년물 보다 낮은 경우 대체적으로 18개월 이내 경기후퇴가 시작

■ 미국 소비지출, 금리인상 지속 전망에도 일정 기간 양호할 가능성 - 블룸버그

(Consumers Power Through on the Way to Higher Rates)

- 미국의 3월 소매매출은 전월비 0.5% 증가했고, 4월 미시건대 소비자 태도지수는 65.7로 예상치 상회. 이러한 소비지표들은 금년 정책금리의 2%p 추가인상 예상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소비지출 감소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
- 이는 가계 가처분소득에서 저축 비중이 감소하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주택가격 및 주가 상승에 의한 부의 효과, 정부지원금 수취 등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소비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미국 경제는 매우 완만하지만 성장을 지속할 전망

■ 미국의 이민 우호 정책, 인플레이션 완화 유도는 기대난 - 블룸버그

(More Immigration Will Do Little to Slow U.S. Inflation)

■ 미국 은행권의 트레이딩 부문 실적 개선, 자본규제로 지속 가능성에 의구심 - WSJ

(Wall Street Trades Up, For Now)

■ 신흥국 국채, 러시아 경제제재 여파로 채무불이행 우려 증증 - Financial Times

(Unsafe at any price)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